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7권 3호 (2014년 9월)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수형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 장지윤 · 이경순 · 장은영

중 · 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 개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의 분석  
 ..... 김혜은 · 정정숙

아동의 특성 불안 및 부정적 정서성과 통증 기억 정확성의 관계  
 ..... 이승진 · 광금주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 윤태희 · 조영일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 이승연

이차순위 마음이론에 대한 암묵적 이해와 외현적 이해의 발달:  
 과제의 단순화와 숙임수 명시효과를 중심으로 ..... 김윤지 · 송하나

품행문제 청소년의 공감손상: 인지공감의 손상인가 정서공감의 손상인가?  
 ..... 문은옥 · 김혜리 · 천영운 · 김태화 · 최현욱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 · 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정민 · 성현란 · 권선영

소리 내어 읽기와 계열 위치 효과가 아동의 이야기 회상에 미치는 영향  
 ..... 송하나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 발 달

제 27 권 제 3 호 / 2014. 9

수형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	장지윤 · 이경순 · 장은영 / 1
중 · 고등학교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요인: 개인, 가정환경, 학교요인의 분석 .....	김혜은 · 정정숙 / 21
아동의 특성 불안 및 부정적 정서성과 통증 기억 정확성의 관계 .....	이승진 · 광금주 / 39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	윤태희 · 조영일 / 61
중학생의 공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규준과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의 관계 .....	이승연 / 89
이차순위 마음이론에 대한 암묵적 이해와 외현적 이해의 발달: 과제의 단순화와 숙임수 명시효과를 중심으로 .....	김윤지 · 송하나 / 111
품행문제 청소년의 공감손상: 인지공감의 손상인가 정서공감의 손상인가? .....	문은옥 · 김혜리 · 천영운 · 김태화 · 최현옥 / 127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남정민 · 성현란 · 권선영 / 147
소리 내어 읽기와 계열 위치 효과가 아동의 이야기 회상에 미치는 영향 .....	송하나 / 169

한국발달심리학회

##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 정 민

서대구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 현 란<sup>†</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자녀의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남녀 중학생 463명의 자료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남·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애정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아의 신체증상과 비행, 여아의 우울/불안에 대해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비애정적 양육 시에는 심리적 통제 집단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애정적 양육 시에서는 심리적 통제 집단과 심리적 비통제 집단 간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애정적 양육은 지각된 부의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남아의 신체증상과 비행, 여아의 우울/불안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애정적 양육,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sup>†</sup> 교신저자: 성현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E-mail: hrsung@cu.ac.kr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함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이자 주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많은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자기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조정하는 등으로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것은 청소년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며, 청소년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아인식을 해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학교생활을 포함한 청소년의 전반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지지차원과 통제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부모의 지지행동은 온정, 수용, 반응적 행동, 민감성 등과 같이 단일한 요소로 개념화되며,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비교적 일관성 있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arber, 1996). 반면, 부모의 통제행동은 감독과 훈육, 강압적 지시와 요구, 제약과 처벌 등과 같이 다중구성요소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일관적이지 않아서, 부모의 통제행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통제의 유형을 행동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게 되었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행동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관되고 확고한 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으로(Barber 1996), 자녀의 생활 태도나 행동에 대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도 감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행동통제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욕구를 무시하고, 독립심이나 자율성의 표현을 차단하는 행동을 통해 자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 Harmon, 2002). 즉, 부모가 자녀의 사고, 감정, 자기표현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경험 및 표현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여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를 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개념(Barber, 1996)이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생각과 느낌을 억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다(Perry, Kusel, & Perry, 1998). 다시 말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적인 수단이 아닌 심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수준에서의 양육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여타의 양육행동과 구분되는 심리적 통제만의 독특한 과정이며, 심리적 통제를 다른 양육행동과 구분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teinberg, 1990). 이에, 최근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Barber와 Harmon(2002)은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적 차원보다는 그 과정에 동반되는 정서나 의사소통 방법으로 표현되기 쉬운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이와 관련된 심리적 통제의 특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전술적인 양육 전략이 되어 자녀를 조작하거나 부모-자녀 관계를 조작하기 위해 이용된다. 자녀 혹은 부모-자녀 관계를 조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도에 맞추도록 하거나 죄의식을 조장하고, 사랑의 철회, 불안 심어주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균형을 조정한다. 둘째, 부모는 심리적 통제를 통해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제한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억제는 자녀의 자기 발견과 표현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 감정적 처벌, 거부, 적대적인 무관심, 개인적 공격, 일관성 없는 정서적 표현 등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때 혼재되어 나타난다.

심리적 통제의 특징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자율성의 발달을 억제하게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의 학습된 무기력감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어

(Barber, 1996),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성취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지각된 부모 심리적 통제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녀의 자긍심은 저하되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증상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Barber, & Harmon, 2002).

또한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깊이 있게, 또는 다양하게 탐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이와 같이 심리적 통제가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내재화 문제와 같은 부정적 발달과 관련이 있고(Barber, & Harmon, 2002; Barber, Stolz, & Olsen, 2005), 특히 사회불안의 발생과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송아, 2009; 윤선숙, 2005; Barber, 1996; Pettit, et al., 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약물이나 비행 행동, 반사회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Barber, 1996; Barber, Bean, & Erickson, 2002).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을 때 좌절하며, 이러한 좌절은 가족 외 환경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며(김민정, 도현심, 2001), Loukas, Paulos와

Robinson(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심리적 통제가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미숙, 손은정, 2013)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킬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정신병리(예컨대, 우울, 불안, 사회적 거부 등)나 문제행동(예컨대, 폭력, 약물남용 등)과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Barber, 1996; Barber & Olsen, 1997; Gray & Steinberg, 1999). 즉, 부모의 행동 통제 정도가 높으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들은 덜 나타나는 데 반해,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현화 문제행동, 모두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Olsen et al., 2002).

특히 자녀의 자유로운 감정과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독립과 자율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여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ber, 1996; Olsen, Yang, Craig, Robinson, Peixia, Nelson, Nelson, Jin & Wo, 2002).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안정적인 자기상의 발전을 저해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 스스로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들을 유발하므로(Barber et al., 1994),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론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다른 중요한 차원은 애정 및 지지의 결핍이다. 애정과 지지가 결핍된 양육을 할 경우에 자녀에게 우울이나 내재적 자기애와 같은 부정적 성격을 발달시키고(문영숙, 2011; 홍영미, 성현란, 2012; Kernberg, 1975).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지지나 관심이 부족한 경우에 청소년은 일탈된 친구들의 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비행 행동도 더 증가하였다(Aalsman, Liu, & Wiehe, 2011; Henry, Tolan, Gorman-Smith, 2001; Stanton, Cole, & Galbraith, 2004). 또한, Mussen(1974)은 부모들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면서 허용적일 때 자녀는 활동적이며 다정하고 창의성이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생활 적응에 단순한 태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Lefreniere와 Dumas(1992)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일 때 유아의 행동이 긍정적이고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촉진시키고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정순옥, 2006).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자녀의 출생과 양육의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관되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의(거부) 축과 자율(자유)-통제(소유)의 축으로 요약한 바 있다. 애정-자율적 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을 갖고 자녀의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양육 태도로서,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고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유아는 애정적-자율적 가정에서 자란 유아보다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 편이며 상상적인 적대감을 품는다고 한다. 거부-자율적인 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부모의 태도로 이러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어린이는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아에 대한 분노와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Medinnus(1961)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비행집단과 정상 소녀 집단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부모에게 거부되고 무시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자녀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양육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심리적 통제의 차원과 애정 및 지지의 차원이 남·여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소수의 자녀만을 둔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보호하려 하고, 자녀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향이 높다(Barber, 2002; Blatt, 2004).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 자녀의 욕구와 발달에 맞게 적절하게 양육하는 대신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통해 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여러 가지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실제로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애정차원과 심리적 통제가 함께 작용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검토한 연구들은 별로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의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나누어 고려한 연구 결과들은 있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차원으로 본 이성수(2000)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애정적, 합리적, 성취적 일수록 아동의 외로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애정-

적대(거부) 차원이 남·여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자율-통제 차원은 부모의 행동통제를 제외한 심리적 통제만을 고려하여 남·여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양육에 있어서 애정차원과 심리적 통제가 두 종류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두 중요한 양육차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남·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애정-거부적 양육태도가 남·여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 방 법

### 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와 P 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178명), 2학년(189명), 3학년(9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먼저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의 개요, 실시시간과 방법,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 등을 설명하고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950부를 배부하여 775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한 부모 가정 자녀와 무성의한 답안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는 총 463명의 자료(남-309명, 여-154명)가 사용되었다.

### 도구

#### 심리적 통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추상엽(2007)이 번안한 CRPBI (심리적 통제 척도,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im(1999)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고과정, 자기표현, 정서와 같은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은 죄책감 유도, 애정철회, 변화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반영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척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동일한 문항이며,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 정도와 어머니에 대해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의 정도를 독립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심리적 통제 척도의 부와 모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8과 .87이었다.

#### 애정적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종승(1982)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검사로 부모양육태도의 4개 영역에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각각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육 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 점수는 각 차원마다 최저 0점에서 1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즉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4 가지 하위 척도 중 애정-적대 차원 하위 척도 (15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이었다.

###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Korean-Youth Self Report)는 미국판 YSR을 토대로 하여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 사회성을 평가하는 사회성 척도, 교과목 수행 정도, 학업수행상의 문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학업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능력 척도 등 모두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는 사회적 위축 척도, 신체증상 척도, 우울/불안 척도, 사회적 문제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제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와 내재화 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등 모두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남자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자해/정체감 문제 척도,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 등 모두 1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내재화 문제 척도와 외현화 문제 척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다.

## 결 과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애정적 양육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 상관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부모 심리적 통제는 부 심리적 통제와 모 심리적 통제,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 심리적 통제와 부 애정적 양육, 모 심리적 통제와 모 애정적 양육은 낮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애정적 양육과 외현화 문제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의 점수들이 평균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어 평균치를 경계로 심리적 통제의 차원에서 평균 점수 이상을 얻은 집단을 심리적 통제 집단, 평균 점수 미만을 얻은 집단을 심리적 비통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애정적 양육태도 차원에서 애정적 점수가 평균 이상인 집단을 애정적 집단, 평균 미만의 집단을 거부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남자 중학생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효과

남자 중학생에서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

표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애정적 양육,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간 상관

	1	2	3	4	5	6	7	8
1. 부 심리적 통제								
2. 모 심리적 통제	.85**							
3. 부모 심리적 통제	.96**	.96**						
4. 부 애정적 양육	-.10*	-.02	-.06					
5. 모 애정적 양육	-.05	-.11*	-.08	.54**				
6. 부모 애정적 양육	-.08	-.07	-.08	.90**	.86**			
7. 내재화 문제	.29**	.27**	.29**	.05	.06	.06		
8. 외현화 문제	.27**	.29**	.29**	-.02	-.04	-.03	.66**	
M	19.30	20.08	39.38	23.31	22.15	45.46	46.08	47.28
SD	7.97	7.99	15.37	2.22	1.90	3.61	10.75	9.23

\*  $p < .05$ , \*\*  $p < .01$ , \*\*\*  $p < .001$ , 이하 표에서 동일.

표 2. 남자 중학생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부			모		
		통제	비통제	합계	통제	비통제	합계
우울/불안	거부	53.88 (8.10)	50.88 (2.69)	52.58 (6.50)	53.99 (7.95)	50.58 (1.92)	53.28 (7.26)
	애정	53.96 (6.84)	52.19 (4.17)	53.23 (5.94)	53.61 (6.58)	51.78 (3.71)	52.85 (5.64)
	합계	53.93 (7.31)	51.68 (3.71)	52.98 (6.16)	53.75 (7.10)	51.57 (3.50)	52.98 (6.16)
위축	거부	52.81 (6.36)	51.76 (6.46)	52.36 (6.40)	53.00 (6.11)	50.95 (2.53)	52.58 (5.61)
	애정	52.92 (5.66)	52.20 (3.85)	52.62 (4.99)	52.54 (5.49)	52.44 (5.68)	52.50 (5.56)
	합계	52.88 (5.91)	52.03 (5.02)	52.52 (5.56)	52.71 (5.71)	52.18 (5.29)	52.52 (5.56)
신체증상	거부	54.43 (8.76)	50.80 (2.72)	52.86 (7.05)	53.77 (7.32)	51.21 (4.06)	53.24 (6.84)
	애정	53.16 (5.78)	52.52 (5.63)	52.90 (5.71)	53.07 (6.33)	52.26 (5.47)	52.73 (5.99)
	합계	53.64 (7.05)	51.85 (4.77)	52.88 (6.25)	53.33 (6.70)	52.07 (5.25)	52.88 (6.25)

준오차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불안( $F=10.98, p<.001$ ), 신체증상( $F=8.53,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의 심리적 통제 집단이 부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우울/불안, 신체증상이 더 높았다. 위축( $F=1.78, ns$ )은 통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애정적 양육과 거부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양육태도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F=4.17, p<.05$ )(그림 1 참조).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신체증상은 거부적 양육 조건의 경우에 심리적 통제 집단(54.43)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50.8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 조건의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 집단(53.16)과 심리적 비통제 집단(52.52) 간에 신체증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불안( $F=8.69,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의 심리적 통제 집단이 모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우울/불안이 더 높았다. 그러나 위축( $F=1.74, ns$ ), 신체증상( $F=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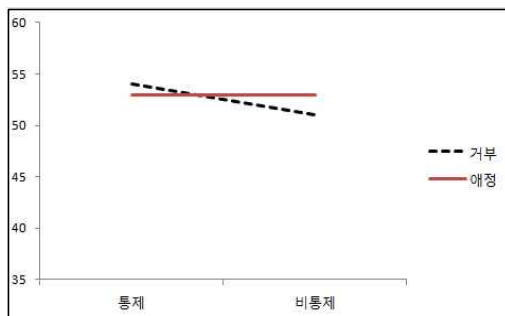


그림 1. 신체증상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남)

$ns$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애정적 양육과 거부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여자 중학생에서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대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효과

여자 중학생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불안( $F=15.49, p<.001$ ), 위축( $F=9.42, p<.05$ ), 신체증상( $F=7.28,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리적 통제 집단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애정적 양육에 따른 이원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였다 ( $F=15.20, p<.001$ )(그림 2 참조) 즉 거부적 양육 조건에서는 심리적 통제 집단(54.45)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40.06)보다 우울/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 조건에서는 심리적 통제 집단(46.26)과 심리적 비통제 집단(46.19) 간에 우울/불안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 중학생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우울/불안( $F=10.43, p<.05$ ), 위축( $F=8.73, p<.05$ ), 신체증상( $F=11.61,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의 심리적 통제 집단이 모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

표 3. 여자 중학생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부			모			
	통제	비통제	합계	통제	비통제	합계	
우울/불안	거부	54.45 (13.79)	40.06 (9.10)	45.29 (12.95)	48.54 (10.51)	42.85 (9.03)	46.07 (10.20)
	애정	46.26 (11.53)	46.19 (9.46)	46.22 (10.33)	50.05 (13.55)	43.12 (9.70)	45.81 (11.79)
	합계	48.90 (12.79)	43.86 (9.75)	45.89 (11.31)	49.47 (12.41)	43.06 (9.50)	45.89 (11.31)
위축	거부	49.15 (9.77)	41.31 (8.67)	44.16 (9.76)	46.96 (9.99)	43.55 (11.49)	45.48 (10.68)
	애정	49.26 (11.62)	46.54 (9.34)	47.70 (10.40)	51.14 (10.63)	44.11 (8.84)	46.84 (10.14)
	합계	49.23 (10.97)	44.55 (9.40)	46.44 (10.29)	49.54 (10.52)	43.98 (9.46)	46.44 (10.29)
신체증상	거부	50.90 (12.07)	42.91 (7.21)	45.82 (9.95)	47.85 (9.83)	42.25 (6.48)	45.41 (8.90)
	애정	47.83 (12.43)	45.98 (10.14)	46.77 (11.15)	51.10 (12.90)	44.17 (9.50)	46.86 (11.41)
	합계	48.82 (12.30)	44.82 (9.22)	46.43 (10.71)	49.85 (11.85)	43.72 (8.89)	46.43 (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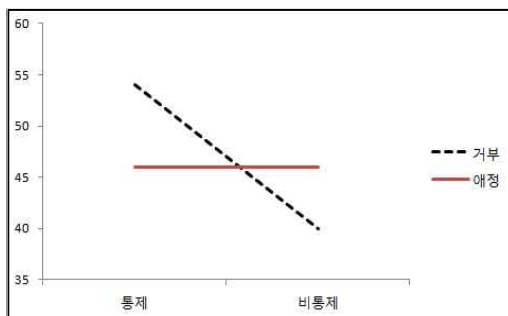


그림 2. 우울/불안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여)

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 중학생에서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대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효과

남자 중학생에서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른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하위요인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공격성( $F=14.52, p<.001$ )과 비행( $F=9.39,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의 심리적 통

표 4. 남자 중학생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부			모			
	통제	비통제	합계	통제	비통제	합계	
공격성	거부	53.75 (5.85)	50.53 (2.04)	52.36 (4.86)	53.67 (5.50)	50.42 (1.43)	53.00 (5.10)
	애정	53.23 (5.38)	52.10 (4.22)	52.76 (4.96)	53.14 (5.45)	51.46 (3.61)	52.44 (4.84)
	합계	53.42 (5.55)	51.48 (3.61)	52.61 (4.92)	53.34 (5.46)	51.28 (3.35)	52.61 (4.92)
비행	거부	54.33 (7.45)	51.22 (3.14)	52.98 (6.16)	53.77 (6.48)	51.21 (2.97)	53.24 (6.00)
	애정	52.65 (4.74)	51.95 (4.77)	52.36 (4.75)	52.71 (5.26)	51.79 (4.61)	52.33 (5.01)
	합계	53.28 (5.94)	51.66 (4.21)	52.60 (5.33)	53.10 (5.74)	51.69 (4.36)	52.60 (5.33)

제 집단이 부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공격성, 비행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에 따른 외현화 문제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 중학생에서 비행에 대한 부의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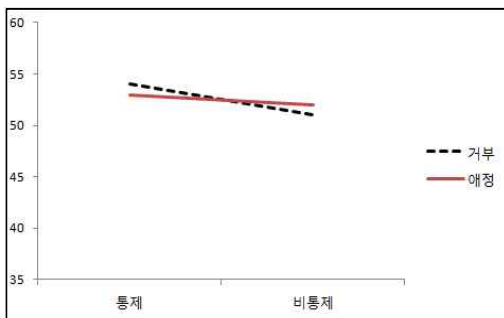


그림 3. 비행에 대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의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남)

통제와 부의 양육태도 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3.75, p<.05$ ). (그림 3 참조) 거부적 양육 조건에서는 심리적 통제 집단(54.33)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51.22)보다 비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애정적 양육 조건에서는 심리적 통제 집단(52.65)과 심리적 비통제 집단(51.95) 간에 비행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자 중학생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공격성( $F=12.24, p<.001$ ), 비행( $F=5.05,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리적 통제 집단이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공격성과 비행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과 거부적 양육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여자 중학생 집단의 부와 모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외현화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척도	부			모			
	통제	비통제	합계	통제	비통제	합계	
공격성	거부	52.60 (8.85)	43.06 (6.96)	46.53 (8.92)	52.81 (9.02)	46.55 (7.77)	50.09 (8.97)
	애정	50.64 (10.48)	46.98 (9.33)	48.54 (9.95)	49.88 (9.99)	44.92 (9.16)	46.85 (9.75)
	합계	51.27 (9.96)	45.49 (8.68)	47.82 (9.61)	51.00 (9.67)	45.30 (8.84)	47.82 (9.61)
비행	거부	50.60 (9.75)	45.26 (6.58)	47.20 (8.21)	49.23 (9.52)	45.30 (7.28)	47.52 (8.75)
	애정	49.52 (8.74)	45.79 (7.21)	47.37 (8.07)	50.00 (8.16)	45.45 (7.14)	47.22 (7.84)
	합계	49.87 (9.01)	45.59 (6.94)	47.31 (8.09)	49.71 (8.64)	45.42 (7.13)	47.31 (8.09)

여자 중학생에서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대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의 효과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양육태도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여자 중학생 집단이 지각한 부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공격성( $F=17.43, p<.001$ )과 비행( $F=11.06, p<.0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의 심리적 통제 집단이 부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공격성, 비행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 중학생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에 따라 공격성( $F=11.63, p<.001$ ), 비행( $F=9.08,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의 심리적 통제 집단이 모의 심리적 비통제 집단보다 공격

성, 비행이 더 높았다. 애정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남·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애정적 양육이 남·여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D 광역시와 P시에 소재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중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 외현화 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하며, 이들 결과들에 대한 논의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가

더 높다고 지각한 집단이 비통제집단보다 내재화 문제인 우울/불안과 신체증상이 더 높았으나, 위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애정적 양육에 따른 내재화 문제 행동(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신체 증상에 대해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부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재화 문제에 차이가 없었으나, 부가 거부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신체증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시 말해서 부가 거부적 양육 태도를 취할 경우에만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신체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자 중학생의 내재적 문제에 대한 모의 영향은 부의 영향과 다소 달랐다. 즉 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집단은 적게 하는 집단보다 우울/불안이 높았는데, 모의 애정적 양육을 하든 거부적 양육을 하든 관계없이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우울/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모의 애정적 양육 여부도 남자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의 하위 요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여자 중학생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내재화 문제의 하위요인인 우울/불안, 신체증상 그리고 위축, 모두가 높았으나, 애정적 양육에 따라서는 우울/불안, 신체증상 그리고 위축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자 중학생에서 모가 애정적 양육을 하든 하지 않든 우울/불안, 신체증상 그리고 위축에 차이가 없었다. 여자 중학생에서는 우울/불안에 대해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즉 부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가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거부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위축과 신체증상에 대해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부의 애정적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에 대한 남자 중학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인 공격성과 비행, 모두가 높았으나, 애정적 양육은 공격성,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비행에 대해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는데, 부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비행에 차이가 없었으나, 부가 거부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 때 비행이 유의하게 높았다. 다시 말해서 부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에만 심리적 통제가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자 중학생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모의 영향을 보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공격성과 비행이 높았으나, 애정적 양육은 공격성과 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두 변인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여자 중학생의 외현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부의 심리적 통제는 공격성과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애정적 양육은 외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인 공격성과 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여자 중학생에서 모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과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애정적 양육은 공격성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은 여자 중학생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기초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부와 모 각각의 심리적 통제는 모두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통제가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내재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자아비난이나 우울이 높아졌다고 한 결과들(김혜인, 2010; 박성연 등, 2008; Barber & Harmon, 2002; Soenens & Vansteenkiste, 2010) 및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고 지각한 아동은 중학교 2학년 때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Barber, 1996)들과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가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외현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약물남용, 비행, 반사회성이 증가 되었다는 선행연구들(김송아, 2009; 윤선숙, 2005; Barber, 1996; Petti et al., 2001)의 결과들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김미원, 박영신, 2012; 윤언정, 김경연, 2010; 전미숙, 손은정, 2013; 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과 일관성이 있다. 심리적 통제는 수용적인 양육 행동이나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엄격히 통제하는 양육행동에 비해 공격성과 비행을 보다 많이 예측하였다는 Mason, Cauce, Gonzales와 Hiraga (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모두 남아 자녀든 여아 자녀든 관계없이 내재적 문제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도 증가시킨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이 심리적 통제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는 것으로 보아 심리적 통제

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 애정절희,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가 자녀를 위한 양육적 행동이기 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양육행동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 중학생의 신체증상과 비행, 그리고 여자중학생의 우울/불안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효과가 부의 애정적 양육에 의해 완화됨을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통제에서 보이는 자녀의 생각과 느낌의 억압, 복종의 욕구가 있더라도 애정적 양육과 결합되면 내재화 문제의 일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부의 심리적 통제는 위축을 증가시키지는 않았고, 모의 심리적 통제 역시 위축과 신체 증상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남학생의 경우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불안에 더 일관성 있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통제는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저하, 좌절감 상승, 자율성 저하 등을 거쳐 자녀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심리적 통제를 하더라도 높은 애정과 관심과 결합할 때에는 일단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좌절을 낮추고, 자율성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내재화 문제 행동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중에 흥미로운 것은 남·녀 중학생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해 모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애정적 양육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는 점이다. 즉 모가 심리적 통제를 할 경우에는 모가 애정적 양육을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지 않고 내재화 문제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아마도 모

는 부와 다르게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상호 작용하게 되므로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한다면 비록 애정적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이 더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가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외현화 문제인 공격성과 비행에 대해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가 거부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제가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애정이 뒷받침되면 심리적 통제를 하더라도 남자 중학생 자녀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재화 문제 행동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애정과 관심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자 중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애정의 효과는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두 유형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심리적 통제의 주효과는 있었지만 애정적 양육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 양육은 사회적 유능성이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더 잘 예측하고, 심리적 통제는 우울 증가를 더 잘 예측한다는 결과(Stoltz et al., 2005)와도 일치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으므로 애정적 양육의 영향이 심리적 통제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기도 하였으나 주효과의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첫째,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부정적 효과는 비애정적 양육과 결합할 때에 한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양육방식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 간에는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나 서로 독립적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서구의 선행연구들(Barber, & Harmon, 2002)에서 심리적 통제는 비애정적인 양육의 가정에서 보이는 양육특징으로 간주함으로써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는 강한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 왔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애정적 양육이 높은 심리적 통제와 결합한 양육이 있을 수 있다.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직접 검토한 선행 연구는 드문데, Stoltz, Barber와 Olsen(2005)은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는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양육의 결합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적 통제는 남·여 중학생 집단의 내재화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외현화 문제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현화 문제 행동 중 어느 한 쪽을 검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 행동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심리적 통제가 두 유형의 문제 행동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흔히 다루지 않았던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의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부모들과 서구 부모들의

양육방식의 문화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양육은 각 문화의 전통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므로 서구의 양육방식 분류를 한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양육 방식에는 문화적 차이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Elmore, & Gaylord-Harden, 2013; Bean, Barber, & Crane, 2006). Stoltz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애정적 양육은 심리적 통제와 보통 정도의 부적 상관(부: -.44, 모: -.47)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애정적 양육을 많이 하는 부모는 심리적 통제를 작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국의 부모들의 경우에는 애정적 양육과 심리적 통제 간에 유의하지는 했으나 매우 낮은 상관이 있을 뿐이었다(부: -.10, 모: -.11). 다시 말하면 한국의 부모들의 경우에는 높은 애정적 양육을 하는 부모도 심리적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결과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혈통주의가 강한 전통 속에서 자녀에게 큰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자녀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점차 한국의 부모들도 자녀의 개별성(individuality)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서구문화의 부모들에 비해서 양육방식의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높은 심리적 통제의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낮은 심리적 통제의 경우보다는 다소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 자녀에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에 있어서는 애정적 양육을 하는 경우에 심리적 통제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있고 따라서 심리적 통제를 낮추는 양육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자녀에 있어서 선행 연구들의 경향과 유사하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양육방식과 성격형성에 관한 포괄적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부모들의 양육특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부모들의 양육방식의 영향에 대해 비교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김미원, 박영신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우정특성의 관계: 관계공격성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8(1), 171-190.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송아 (2009).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

-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0). 청소년 비행 행동 측정 도구 개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1(1), 79-90.
- 김혜인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영, 박성연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기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6(3), 331-355.
- 문보경, 이정숙 (201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41-60.
- 문영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7(1), 25-27.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성연, 이은경 (2009).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구성요소의 타당성 연구: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아동학회지*, 30(2), 211-229.
- 박순희 (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691-710.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9(4), 867-885.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이성수 (200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외로움과의 관계. *아동연구*, 16(1), 1225-1798.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의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 이지인, 박성연 (2011). 어머니의 애착경험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3), 175-189.
- 이훈구 역 (1983). *성격심리학(재판)*. Larry A. Hjelle와 Daniel J. Ziegler의 *Personality Theories* (원본발간일, 1976). 서울: 범문사
- 임성문, 박명희 (2010). 위험회피 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사회*

- 과학연구, 27(2), 127-146.
- 윤선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개념,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언정, 김경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8), 67-76.
- 전미숙, 손은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 시설환경, 11(2), 19-27.
- 조한익, 황정은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간의 관계: 정서 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4), 27-52.
- 홍영미, 성현란 (2012). 대학생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35-48.
- Aalsman, M. C., Liu, G. C., & Wiehe, S. E. (2011). The role of perceived parent monitoring and support on urban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47*, 61-66.
- Adler, A. (1964).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New York: Capricorn.(Original work published 1938)
- Avenevoli, S., & Merikangas, K. R. (2006). Implications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126-13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1).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B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Olsen, J. A. (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493-515.
-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4*, 1120-1136.
- Barber, B. K., Stol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RCD, 70*(Serial No. 282).
- Bean, R. A., Barber, B. K.,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335-135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ch*, NY: Russel Sage, pp. 174-175.
- Blatt, S. J. (2004). *Experience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uce, A. E., Cole, D. A., Dallaire, D. H., Jacquez, F. M., Pineda, A. Q., & LaGrange, B. (2006). Relations of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ognitive diatheses for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21-333.
- Elmore, C. A., & Haylore-Harden, N. K. (2013). The influence of supportive parenting and racial socialization messages on African-American youth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 63-75.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Gray, M. R., & Steinberg, L. (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Henry, D. B., Tolan, P. H., Gorman-Smith, D. (2001). Longitudinal family and peer group effect on violence and nonviolent delinquen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172-186.
- Kim, C. W. (1999). *Social-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success on college entrance exams in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USA.
- Kuppens, S., Grietens, H., Onghena, P., & Michiels, D. (2009). Rel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relational aggression: Reciprocal in natur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8(1), 117-131.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s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son, C. A., Cauce, A. M., Gonzales, M., & Hiraga, Y. (1996). Neither too sweet nor too sour: Problem peers, maternal control, and problem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7, 2115-2130.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D., Nelson, J., Jin, S.,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arber, B.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9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tti,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 74-99.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Maladaptive perfectionistic self-representations: The mediational link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487-498.
- Stanton, B. F., Cole, M., Galbraith, J. (2004). Randomized trial of a parental intervention: Parents can make a difference in long-term adolescent risk behaviors, perception and knowledg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 947-965.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S. Feldman & G.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ol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method, and culture. *Child Development, 70*(4), 1-137.
-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227-1236.

1차원고접수 : 2014.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9.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9. 05.

##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ve Parenting on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in Junior Middle Schoolers

Jung-Min Nam<sup>1)</sup>

Hyun-Ran Sung<sup>2)</sup>

Seon-Young Gwon<sup>3)</sup>

<sup>1)</sup>Department of Mental, Health Seodaegu, Daedong Hospital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ic University of Daegu

<sup>3)</sup>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erceiv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ve parenting on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in junior middle schoolers. The subjects were 463 boys and girls in junior middle school in Deagu and Gyeongbuk area. Two way analysis of variance by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ve parenting was used for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psychological control had negative effect on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but the effect of affective parenting was not significant on both behavior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y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ve parenting on boy's physical symptom and delinquency and girl's depression/anxiety. In low affective parenting condition, high psychological control has negative effect on boy's physical symptom and delinquency and girl's depression/anxiety. However, In high affective parenting condition, negativ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ol was released. Moreover there was not interaction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ve parenting on any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Key words* :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ve parenting, internalized behavior, externalized behavior*